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인문학 출판은 위기다



최성일*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홍익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제2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 열렸다. 41개 출판사가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는데, 첫날 오후 북 페스티벌을 한 시간 남짓 둘러보았다. 결론은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책 축제는 좀 힘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국제도서전보다는 문턱이 낮고 독자들의 접근도를 높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그 정도면 웬만한 인문사회 출판사는 얼추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시와 판매 어느 한쪽으로 주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출판사들이 책 판매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다. 첫날이라 그런지 책을 얼마 가져다 놓지도 않은 듯싶었다. ㅎ출판사 천막에서 80년대를 대표하는 총서였던 '오늘의 사상신서' 재고도서를 만나 반가웠다. 그런데 반가움은 잠시, 진열된 목록이 몇 안 되고, 3천원으로 적정가격이 매겨져 있어 아쉬웠다.

도서정가제는 지켜야 하지만 책 축제 기간에는 신·구간 가리지 않고 파격적인 가격으로 파는 건

어떨까? 인간의 할인 폭은 10~30% 정도였는데, 이때라도 50% 세일을 하면 어떨는지. 물론 구색을 잘 갖추고서 말이다. 독자들이 사고 싶던 책을 책 축제를 기다렸다 구입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라는 건 무리일는지. 책 놀이터는 부평기적의도서관의 야외 버전인 듯해 감동이 약간 덜했다. 그리고 노천에 천막을 쳐서 전시장을 마련하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였다.

책 축제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견해에 대해 어느 일간지 출판담당 기자는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와우북 페스티벌은, 이제 2회라는 점 때문에 아직 비판은 이른 듯합니다. 좌우지간 이런 것을 계속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성격은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책 축제와 인문출판의 위기

이곳저곳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걱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9월 15일 고려대 인문대 교수 전원이

*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한 데 이어, 9월 25일에는 93개 대학이 참여한 전국인문대학장단이 '오늘의 인문학을 위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인문대학장단은 성명서에서 "오늘날 직면한 인문학의 위기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진정성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자각한다"며, 대학과 정부는 "시장 논리에 영합하지 말고 충실한 인문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푸른숲, 돌베개 등 인문학 책을 펴내는 67개 출판사들도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 모여 인문학 책의 위기를 선언하고, 인문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때 맞춰 〈한겨레〉는 2006년 9월 25일자에서 「'인문학 위기' 출구는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인문학의 안과 밖에서 말하는 '인문학'에 대한 두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문학의 위기를 안에서 본,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대학사회에 심화된 인문학의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위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적어도 해방 이후의 반세기가 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망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인문학의 위기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장을 반영한다. 국내박사가 교수충원의 주요한 통로의 하나가 된 이공계 분야와는 달리 인문학은 대외 의존성을 탈피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인문학의 존재이유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극복할 방안은 뭔가? "인문학자들의 자기반성을 인문학의 자기혁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사회의 인문학에 대한 수요와 인문적 실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간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

고 인간적 삶의 건강함과 균형 감각을 끊임없이 복원시키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시대적 변화를 외면하고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전통을 복원하여 과거를 현재화하는데 게을렀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공병호경영연구소 공병호 소장은 국외자의 위치에 있다. 공병호 소장은 "인문학 위기"를 말할 때 지원하는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폐과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른 대학들이 날로 늘어나고 마침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위기임이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작금의 인문학 위기론은 호들갑이 아니냐는 신중론을 편다. "그런 위기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기에 특별히 인문학의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공병호는 대우재단의 지원을 받은 '대우학술총서'가 인문학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예로 들면서 "뜻있는 재단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장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인문학과 같은 지적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지원하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인문학 분야에 계신 분들이 소비자 중심의 사고를 갖고 좀 더 절박하게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인문학 출판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인문서 출판사들의 선언문 전문을 아래에 옮긴다.

인문학 출판을 되살리자

우리사회에서 '인문학의 위기'가 운위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마치 철 지난 이야기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이렇듯 우리가 위

기에 무감각하고 체념하는 사이 우리 인문학은 위기 상황을 지나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터져 나온 고려대 교수들의 '인문학 선언'은 그러한 고사 직전의 신음소리로 읽힌다. 인문학을 대중적으로 소통하는 매개적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출판인들은 현금의 상황에 일단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러한 인문학의 위기 상황을 인문학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회 각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 출판의 위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간의 발행종수가 줄어들고 있으며(2006.8.말 현재 출협 납본통계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 발행부수 또한 감소하고 있다. 진지한 독서와 담론의 공간은 좁아지고, 출판사는 채산성의 악화로 출간을 포기하는 원고가 늘고, 자신의 책 낼 곳을 찾지 못한 저자는 이리저리 전전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문학 출판의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우울한 풍경이다. 이런 가운데서 외국어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문학 출판의 국내적 기반은 약화되는 대신 대외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구-저술-출판-독자로 순환되는 지식문화의 생태계가 근저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인문학의 위기, 인문학 출판의 위기는 하나의 분과학문, 하나의 산업의 위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인간 능력의 위기이며, 공동체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전

망하는 사회적 능력의 위기이다. 가치론적 탐구가 없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인문학적 해석과 성찰이 없는 사회가 어떻게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인가? 인문학의 풍요로운 정신과 사상으로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며 사회와 문명은 역사적 진보를 이루어간다.

우리는 경쟁력의 개념을 부정하지 않는다. 지식기반사회로 불리는 이 21세기에 최고의,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적 지식과 새로운 상상력을 생산해내는 능력이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여기저기 널려 있는 기성의 지식과 정보, 문화를 수합하고 모방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 새로운 지식과 개성적 문화를 창출해내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문학에서 비롯된다. 인문학과 인문학 출판의 흥룡이야말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 정부는 인문학과 인문학 출판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인문학의 저술, 출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 창조적 글쓰기와 지식 생산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연구 평가방식과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 학교에서 읽기와 쓰기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해야 한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은 창조적 사고와 상상력의 원천이다.
- 인문학의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 출판계, 교육계, 언론,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토론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출판저널> 특집

이에 앞서 <출판저널> 2006년 9월호(제370호)는 '검색! 갈림길에 선 인문학·인문서'를 15쪽에 걸쳐 표지이야기로 다뤘다. 정선태 국민대 국문과 교수는 '쏟아지는 인문서, '인문백화점'의 짝퉁' 다수'라는 글에서 내로라하는 인터넷서점들을 검색한 결과를 전한다.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간행된 책들 중, 역사·문학·철학 등을 포함한 '인문학' 관련 책들이 어림잡아 1800종을 훌쩍 넘는 게 아닌가. 통계의 허점 또는 '속임수'를 감안한다하더라도 놀라운 숫자임에 틀림없다."

'인문학은 죽었다!'는 탄식을 무색하게 하는 숫자의 속내는 이내 밝혀진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간행된 이른바 인문학 관련 서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문백화점'에 슬며시 진열된 '짝퉁'들이라는 것이, 허무하게도 너무나 쉽게 눈에 띄어 버린다. '하룻밤'에 '한 권'으로 끝내는 책들이, 살아있는 '교과서'와 누구나 알아야 할 '교양'이, 동서고금의 학자들을 현란하게 내세운 '해설'과 '각

주'들이, 갖가지 진기명기를 선보이는 데야 어디 '진품'들이 설자리가 있겠는가."

'진품'을 어떻게 식별하느냐 자문한 다음, 정선태 교수는 이렇게 답한다. "서운하게 또는 모질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한국 지성사의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 동서고금의 고전들, 우리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시금석이 되는 동시대의 저작들, 다시 말해 팔릴 가능성이 희박한, '정신적 귀족'을 위한 책들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강인하게 '정신적 귀족'이 되기를 욕망하는 사람들을 건인할 수 있는 책이라 해야 보다 적절할 듯하다."

「인문학, 인문서 출판에 대한 단상」을 통해 유재건 그린비 출판사 대표는 그린비에서 펴낸 인문서와 관련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진중문고'를 아시는지? 맞다. 국방부에서 1년에 네다섯 종의 책을 선정, 구입해서 군대내 도서관과 내무반에 비치하는 도서다. 종

당 1만부 정도를 구입하는데, 대개 가벼운 책들이 선정되게 마련이어서 딱딱한 인문사회과학서를 내는 우리 출판사로서는 감히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런데 올해 8월, 우리 출판사의 『화폐, 마법의 사중주』가 딱하니 진중문고에 선정되었다."

우리사회에 새로운 물길을 내야

다른 하나는 씩씩하기 짝이 없다. "지난 7월 초 우리 출판사에서는 『한미FTA국민보고서』라



는 책을 냈다. 책을 내고 20일쯤 지난 7월 30일, 출간 당시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았던 <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한국경제신문>은 약속이나 한 듯 한낱한시에 사실과 칼럼, 특집 기사를 통해 '친북' 운운하면서 이 책의 반국가성을 큼지막하게 다뤘다." 인문학을 "인간의 존재와 삶을 묻는 학문"으로 보는 유재건은 "인문학은 편향된 만큼 좁아지고, 그에 비례하여 독자를 설득·수용할 수 있는 출판의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그래도 유재건은 "지식이 정보로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책은, 인문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다시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보길 제안한다. 또한, 인문출판은 범람하는 물과 같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다양한 문제 제기와 상상력으로 기존의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우리사회의 지형에 새로운 물길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출판저널>의 인문서 특집은 도정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대표와 가진 인터뷰 「우리 삶은 온통 인문학적 물음과 대답」으로 마무리한다. 도정일 대표는 인문학 출판이 나아갈 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성화된 인문서를 만드는 출판사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대중적 언어 감각을 가진 저술가를 투입해서 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저술 인력을 길러내는 첫 번째 책임은 출판계에 있다. 비전문가가 써내는 영터리 인문서는 차라리 출판하지 말아야 한다. 인문학의 모든 분야에서 다중

다양한 인문학 대중서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독자의 폭이 커지고 관심분야가 넓어질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독서 교육도 출판계의 중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부부간의 위기로부터도

정신과전문의 정혜신은 인문학 위기의 원천을 개인 가정사의 위기에서 찾기도 한다.

"저는 부부나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서로가 항상 개별적인 인간이라는 점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의도적으로 상대를 한 역할에 고정시키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애들 얘기는 몇 시간씩 하면서도 남자와 여자로서 관심이나 개별적인 호기심도 없는 채로 그렇게 계속 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부부간의 위기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위기라고 생각해요. 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이나 인간의 개별성에 대한 성찰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은 부부간에 대화를 나눔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문학적인 위기에 처했다고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정혜신 외, 『21세기에는 바뀌어야 할 거짓말』, 한겨레출판, 2006) (출판)